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문향장성 교육을 위해...”

장성교육지원청 탐방

장성교육지원청 이영만 교육장

장성군은 전라남도 북서부에 있는 군으로 유교 전통이 계승되는 탐가마을과 탐가 꽃감으로 유명한 곳이며 북백 양 가을내장이라 할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전통교육 기관으로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봉암서원 등이 있습니다.



문향 고을로서 전남의 관문이자 신종교 불종은 곳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으뜸 장성교육을 달성 하기 위해 첫째 모든 교육행정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꿈나무 꿈을 꾸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교직원들의 자존감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교직원이 학교이고, 학교가 교직원이다"라는 소신으로 교직원들에게 심리적 웰빙 경험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셋째 한 아이를 기르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장성교육은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문불여장성(女不如長城)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만)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문향장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교육활동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장성교육지원청은 학부모, 학생,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지원청은 창의·융합 중심의 지적역량 교육을 위해 다듬을 학습클리프 9개교, 무드림학교 2개교, 중학교 교육력 제고(M+250) 5개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인 학교현장에 정착되도록 2월에 학부모 연수를 시작으로 교사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2년간 지정되어 2015개정교육과정 필수화에 대

비한 교원 워크숍과 원격연수를 실시했으며,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가족체험전'을 열어 3D프린터,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자율과 배려중심의 인성역량 교육 및 감성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제1회 전국청소년 과학수술경연대회'에서 진원초 어울림합창단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독도바보알기대회 전남대회'에서 장성여중 총지은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여 국민안전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품과 깨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기관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원 역량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학부모 연련회를 실시하였다.

장성영재교육원은 장성 영재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고 진로 탐색과 진로체합을 위해 학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장성 영재 학생 명문대 탐방 및 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진로 설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

였다.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더불어 교원들의 역량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내기 지경력 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와 '교사 내면을 세우는 수업 나눔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핵심역량 지도능력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We센터에서는 위기학생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원에서 함께하는 사랑나눔 가족클리프, 해피맨댄스 부모교육 자격증반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등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장성교육지원청은 4개의 역점과제와 장성 선비정신 계승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교모형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장성무지개학교 교육자구의 운영'이다. 소풍과 협력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자율무지개학교를 11교, 교원동아리 9교, 학생 동아리 14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교사를 교실수업개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고 교사의 자존감을 존중해 교사를 수업전문가로 인정해주는 수업 문화 개선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격월로 학부모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별 학부모 교육활동 우수 사례 공유, 교육동반자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 방향 모색 및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두 번째, '독서·토론 수업의 활성화'이다. 독서토론수업 선도교사, 선도학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관내 초·중·고 학생 64명이 참여하여 장성역에서 용산역까지 열차 안에서 독서클럽, 생각나눔 활동, 타인 만들기 등을 전개한 '문향장성 독서·토론열차'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장성공공도서관 연계 교육과 부모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문화기행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문학적 감성교육과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어휘력 배양을 통한 기본학력 증진'이다. 국어사전 활용으로 어휘력을 배양하여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어사전활용 및 기초 연자 학습을 통한 어휘력 배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초·1교, 중·1교를 '연구학교'로, 초·1교, 중·2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성선비정신 함양 교육과 연계하여 한자 학습 정착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네 번째, '작은 학교 교육역량 강화'이다. 기숙형 중학교인 장성백암중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현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어촌 우수교인 장성남중은 '학생오케스트라'와 '반딧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삼성중학교는 '전라남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학력 집프임'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장성교육지원청이 작년보다 수월하고 있는 '협동학교군 운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특색교육활동 '장성선비정신 계승교육'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장성선비정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장성선비정신 계승교육과 범 국민 인성교육진흥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산서원과 장성향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청람·절의·의기를 찾아 떠나는 팔각발이 선비체험교육'을 전개함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선비체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 교류 활동으로 경북안동 교육지원청과 결연을 맺어 학교장, 행정실장, 학생이 안동과 교류하는 등 '말안과 도산이 만나는 선비정신 계승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신과 봉사로서 장성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이영만 교육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사명도 함께 장성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장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